

### 三川寺址 발굴에서 전시까지

한국불교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잇는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은 2005~2007년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에서 발굴 조사해 출토된 유물 및 유구 150여점을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3개월간 기획 전시실에서 전시한다. 대지국사탑비편(大智國師塔碑片), 대지암명청동합(大智庵銘靑銅合), 삼감청자운룡

문호(象嵌靑磁雲龍文壺) 등 고려불교와 생활사 관련 유물로 서울의 역사상을 재조명하는 취지다.

삼천사는 고려 초기 법상종 사찰로 신라말 고려초 한국 불교사의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특별기획전시회는 발굴 조사 성과는 물론 출토된 유물의 보존처리 전 과정을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다. 가연숙 기자



김정향작, '바리메디온의 환상 목욕탕'

김정향展 12월 7일까지 예술공간헛

### 설화적 사유로 재해석된 일상

목욕탕을 배경으로 무수한 욕녀(浴女)들이 등장한다.

전통의 다양한 요소들을 현대적 시각으로 흥미롭게 재해석해온 작가 김정향은 '더더욱 신이 나서 과장하여 떠들 수 있었다' 개인전을 연다. 11월 21일~12월 7일 서울 예술공간헛(HUT)에서 선보이는 환상목욕탕으로의 초대다.

작품은 반가사유상의 형상으로 때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삼미신(三美神) 형상으로 등장시키며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존재로 의인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양 최고의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 거론되는 혼돈의 신이

등장하고 '극락도(極樂圖)'의 요소들과 단테의 <신곡>에 묘사되는 배경들이 어우러진다.

일상의 공간인 목욕탕에서 여인들은 서로의 때를 밀어주거나 물을 뿌려 주면서 육체의 정결을 성취하고 휴식한다. 현실과 환상이 긴밀한 피비우스의 띠처럼 연속적으로 구성된 공간은 종교적, 신화적, 신비적인 복합공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 욕녀들을 신조어 '바리(濼利)메디온(medion)'이라 명한다. 정화를 수행하는 인격체로서 속죄와 재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02)6401-3613

가연숙 기자



###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시상식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12월 5일

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업)는 제1회 대한민국전불가요 대상·제1회 청소년 포교도서 저작상·제3회 한국불교아동문학 작가상 및 신인문학상·제13회 불교청소년문학상 시상식을 갖는다.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12월 5일 저녁 6시 단체 청진 27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한다. 수상작품과 수상자에는 △권별가(경전읽기 권선가) 작곡부문 '지

혜의 경' 조영근(現 한국가요작곡 가협회 부회장) △불교가요 작곡부문 '우리로 부처님같이' 이달철(대구불교음악예술원 원장) △불교가요 시연부문 '바람 부는 산사' 정목스님(인터넷 유나방송 대표) △불교동요 작곡부문 '착한아이 예쁜아이' 정유탍(좋은벗 풍경소리) △아동도서 부문 '내친구 까까머리' 임정진(서울 디지털대 교수)의 12명이다. 가연숙 기자

### 마당놀이 '심청'에서 만난 뽕덕어멈 김성녀

# 눈만 뜨면 뭐하나 세상이 어두운 걸

<심청전>의 주제는 '육체의 눈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라고 봐요. 판소리 역사를 증명하는 생생한 고전으로 온 국민이 아는 소재이고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그 구성력이 극의 맛을 좌우하죠. 극단 미추(대표 손진책)의 '심청'이 20년 전 초연이나 2002년도 공연과 비교했을 때 사회 비판적인 이슈만 틀릴 뿐 주제는 항상 일관됐습니다. 배우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신명나게 사회 현상을 고발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농축된 불교 사상이 '심청'을 더욱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민족 고유의 해학과 풍자 한 마당이 신명나게 펼쳐진다. 30여년 장기공연을 자랑하며 올 해도 어김없이 관객을 찾은 온 가족의 열린 무대. 극단 미추는 마당놀이 '심청'을 11월 20일 개막,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월드컵경기장 마당놀이 전용극장에서 선보인다. 고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노래와 춤으로 현대 사회상과 절묘하게 버무린 연희극이다.

공연에 앞서 만난 김성녀(1986년 극단미추 창단동인, 중앙대 국악대학 학장)는 뽕덕어멈 역할로 악플(비방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담은 댓글)에 희생되는 인물을 연기,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심청은 현실 도피를 위해 공양미 300석을 빌미로 자살하고, 심봉사는 딸을 팔아 눈 뜨겠다는 파멸적인 인간이며, 인금은 맹인 잔치에 나라 돈을 유혹비로 사용했다며 특별조사권을 발휘한다. <심청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극중 요소마다 판죽거리며 발상을 전환하는 감초 해결사다.

"연기는 진심이 없으면 오버하게 되죠. 타인의 인생을 대신 표현하는 연기는 겨울과 같습니다. 겨울이 맑고 깨끗해야 진실한 연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항상 비우고 반성하며 올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는 그는 마음으로 교감하는 예술가이고 싶다. 1987년 TV드라마 <토지>에서 극중 조준구(연규진)의 아내 홍씨 부인으로 악역을 연기한 이후 두 번째 악역을 맡은 그는 뽕덕어멈을 '귀여운 풍수에 잘 노는 개성과 미인 뽕 여자'라며 화사하고 경쾌한 '경기소릿재' 아말로 뽕덕어멈의 매력을 전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지닌 나이와 직위가 그를 권위와 활지라도 배우와 일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맡은 바 충실한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의 면모를 본다.

소설 본, 판소리 본으로 전해 내려오는 작자, 연대 미상의 조선시대 작품 <심청전>은 효행을 주제로 죽음과 환생을 하나의 인과법으로 그려낸 한국 고전소설의 백미다. 마당놀이 '심청'은 눈물, 웃음, 감동의 하모니로 고단한 삶의 무게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한다.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회생을 자청하는 심청의 효심은 이해타산에 찢어 진정한 인간관계와 기초 질서조차 무너져버린 현대 사회에 근원적인 도리의 물음을 던진다. 인간사에 있어 진정으로 소중한 진리가 무엇인지 일깨워보는 자리다.

마당놀이 인간문화재 3인방 윤문식(심봉사), 김성녀(뽕덕어멈), 김종업(폭두쇠)의 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마당놀이 '심청'. 오디션을 통해 심청 역에 발탁된 민은경(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은 김성녀 교수의 직속 제자로 차세대 마당놀이 주자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한 심청이를 바라보며 후배 양성의 기쁨이 잡히고 있음을 느낀다는 그는 한국 전통 공연계의 미래가 밝다고 전망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02)747-5161  
www.madangnoni.co.kr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김성녀

### 방글라데시, 가난속에서 인간을 보다

조성준 다큐 사진展 갤러리M에서 12월 17일까지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조성준(스튜디오 A1 소속)은 인간을 향한 정직한 시선을 카메라에 담는다. 서울 충무로 갤러리M에서 12월 4~17일 'The Inside Life of Bangladesh'展을 통해 그의 흐트러짐 없는 관점과 만난다. 쏟아지는 장대 빗속을 뚫고 운전하는 택사 운전사, 맨발로 폐선을

해제하는 노동자, 탁아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피약벌 아래서 아이를 안고 일하는 벽돌파석장의 아낙네들을 렌즈에 포착한다. 그들의 하루 일당은 고작 150다카(Tk), 한화로 1800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일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행운이다. 실업률 40%가 넘는 그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쓰레기를 뒤지거나 구걸하며 연명하는 까닭이다.

실현적인 재기를 찾아 볼 수 없는 그의 사진은 진정성과 본질만을 탐미한다. 20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 다큐사진작가로 인정받은 세바스티앙 살가도(Sebastiao Salgado, 브라질)의 사진을 연상시키는 그의 작품은 화려한 뒤에 감춰진 세계 곳곳의 아픔을 찾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역사로 남기고 있다. (02)2277-2438

가연숙 기자

▶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절 수행 시 • 성지 순례 산행 시 • 장시간 공부·운동·운동 피곤 시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 아마따茶로 성불수행의 기운을 돋우십시오!

다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아열대지방의 허브 마테(Yerba Mate)는 정신과 육체의 기운을 돋우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마따茶'로 마테(Yerba Mate)가 주는 건강을 누리세요.

아마따란? 미얀마발리어로 '길로' (부처 앞에 올리는 달고 깨끗한 이슬)를 뜻합니다.

- ☘ 無설탕
- ☘ 無색소
- ☘ 無방부제



1566-6289

1BOX 24개입 48,000원 판매처: 유기미역(주) 본점 601139-51-006748 곡민 580301-04-091374



마테(Yerba Mate)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원시부족인 '과라니족'에 의해 발견된 허브. 과라니족은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하는데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테는 현대인의 건강과 명성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